

바뀌는 자동차보험료

무사고 할인혜택 7년→10년이상으로

차량 모델별 자차보험료 최고 20% 차등

수리비 많은 외제차 ↑ … 내년 4월 시행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10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지고 외제차의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르면 다음주에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에 무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 기간을 손해보험사 자율에 맡기고 내년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보험료를 한 해에 5~10% 씩 깎아주고 있으며 7

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최고 60% 할인해 준다.

그러나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사고가 나면 다른 운전자와 똑같은 보험금을 받아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기입을 꺼리는 폐해가 나타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최고 할인율을 도달 기간을 10~12년으로 늘리되 함께 계획으로 확대할 경우 무사고 운전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지금은 7년에 걸쳐 보험료를 최고 60% 깎아주지만 앞으로는 10~12년에 걸

쳐 60%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기량 기준으로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자가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최고 20% 차이나는 모델별 차등화도 시행된다.

특히 외제차는 기본 보험료를 인상해 외제차 간에 최고 20% 차이가 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산차와 비슷한 보험료를 내면서도 사고 때는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큰 외제차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외제차의 자차 보험료 인상 폭이 크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30% 인상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어느 정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모델별 차등화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최고 할인율을 도달 기간 연장을 보험사 간에 다소 이견이 있고 동시에 시행할 경우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유동적이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어떤 내용 담았나

말하면 e-메일 작성 척척

美, 스마트폰용 음성인식 서비스 상용화

사용자가 발음하는 단어를 그대로 인식해 e-메일을 대신 쳐주는 스마트폰용 차세대 ‘음성인식’ 서비스가 미국에서 상용화됐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북미 3위의 이동통신사 스프린트 네트워크(이하 스프링트)은 최근 자사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단말기가 음성 단어를 최고 20개 까지 인식해 e-메일을 작성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로이터 기자가 실제 이 서비스로 10개의 e-메일을 작성해보니 단어를 인식하는 확률은 100%인 반면, 메일 헤더를 만드는데 드는 시간이 평균 53초로 상황에 따라서는 2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통해 음성으로 자주 e-메일을 작성한다는 지 타와샤씨는 “분명 편리한 기능이지만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보이스콘트롤(MobileVoiceControl)이란 업체가 개발한 이 서비스는 현재 기업용 고객에게만 제공되며 매월 6 달러에 e-메일 뿐만 아니라 단문 텍스트 메시지(SMS), 달력 관리, 주소록 확인, 구글 검색, 일기 예보 등 기능을 음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

대한화재 ‘피오레 해피카보험’ 출시

공제의료비 신설



매달 연금형태로

중도 환급금 지급

대한화재는 5일 업계 최초로 공제의료비를 신설해 고객의 의료비 보장이 가능하고 매달 연금형태로 중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배당 피오레 해피카 플러스 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으로 사망해 3천만원, 부상자 1인당 최고 2천만원을 지급한다.

다른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어도 교통사고 치료비로 최고 1천만원을 중복 지급한다. 2년마다 차량 정기검사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났을 때는 납입 보험료를 보험 만기 전달까지 생활연금 형태로 매달 지급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소의 목·갈비사이 살 ‘제비추리’

정육인가 설육인가

〈순수 살코기〉

〈부스러기 살〉

‘제비추리는 정육인가 설육인가’. 소의 목과 갈비 사이 살을 일컫는 ‘제비추리’에 대한 관세청과 농림부의 사소한 분류 차이가 수입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31일 열린 관세법상 품목분류위원회가 쇠고기 제비추리의 품목을 설육이 아닌 정육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설육(fals-fals)은 순수 살코기 를 일컫는 ‘정육’의 반대말로 부

스러기 살을 뜻하며, 현행 관세법상 정육의 관세율은 40%인데 비해 설육은 18%에 불과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통관 과정에서 통상 정육으로 분류돼온 제비추리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 다시 한번 최종 품목 확인이 받게 된 데는 농림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영향이 컸다.

당시 농림부는 이 조건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제비추리를 설육으로 구분, 빼어 붙은 갈비 등과

함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고 이후 관세청에는 제비추리가 ‘정육인지 설육인지’, ‘관세율이 40%인지 18%인지’를 묻는 수입업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분류 체계를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관세법상 분류에 상관없이 농림부가 발표한 수입

생육 조건은 국내법으로서 유

효하며 제비 추리는 아예 수입

자체가 금지되는 미국산 쇠고기 부위로 지정된 만큼 관세율 적용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품목분류위원회는 미국산 ‘G3 주스’를 5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혼합주스’가 아닌 9%의 ‘과즙음료’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 음료의 주요 특성이 객을 비롯한 약용 과일 주출물에 있고 가격도 일반 주스의 10배 이상 비싸게 거래된다는 점을 감안, 관세율이 낮은 과즙음료로 분류했다.

/연합뉴스



꽃무늬 도자기로 흔수 준비하세요

가을 흔수시즌을 맞아 한국도자기 관계자가 청계 8가점에서 다양한 흔수 흔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20만원에서 60만원 선.

어르신 맞춤형 아파트 나온다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기준 KS 제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5일 고령자와 일반인의 인체 특성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범용설계(UD) 개념이 적용된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수칙 및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범용설계는 고령자, 장애인, 일반인 등이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닥의 문 턱을 제거하거나 안전장치 경고신호로 시각과 음향을 함께 사용하는 등을 말한다.

기술표준원은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수칙 및 기준에 바닥에 있는 경우가 많은 한국인의 특성, 보행장애자와 고령자의 활동여지에 의한 활동, 고령자를 수발하는 일반인의 인체처수 등을 반영해 고령자와 일반인 모두 최대한 편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또 주거시설 표준화 대상의 설계처수를 신축하는 방식을 제시해 인체처수 변화, 고령자 주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암로·요양 등 고령자 전용 시설 건축 등에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주거시설 뿐 아니라 의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종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고령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령자를 배려한 표준 제정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새한건설 ‘아름다운 기부’

수완지구 모델하우스 개관 축하 ‘사랑의 쌀’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

새한건설(대표 남진희)은 5일 광주시 수완지구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사랑의 쌀’ 기증행사를 갖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을 다짐했다.

새한건설이 이날 광산구청에 전달한 쌀은 10kg짜리 500포대, 총 5t 물량으로 수완지구 모델하우스 개관 축하행사를 ‘사랑의 쌀’로 대신 받은 것이다. ‘사랑의 쌀’은 광산구 사회복지과를 통해 지역내 소년·소녀가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남 대표는 “이번 행사는 외관만 화려한 화환보다 실속있는 쌀을 선물로 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수완지구 개관 행사를 계기로 향후 회사의 각종 행사에도 ‘사랑의 쌀’을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새한건설은 지난달 31일 시작된 수완지구 동시분양에서 ‘새한 포유’아파트 36평형 364세대를 공급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청 직원들이 5일 새한건설이 기증한 ‘사랑의 쌀’ 10kg짜리 500포대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다. 〈새한건설 제공〉

대우건설 매각 정밀실사 마무리

금호아시아나, 본격 가격 협상

대우건설의 매각 정밀 실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 간의 본격적인 가격 협상이 시작된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정밀 실사가 지난 달 끝났으며 금주 안으로 금호증권의 정밀 실사 보고서가 접수될 것”이라며 “공사의 자체 실사 결과와 대조해 이르면 금주 말, 늦어도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인 최종 인수대금과 계약 조건 협의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이달 18일께 계약조건을 확정짓고, 공작자금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0월 말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인수대금 등 협상이 난항을 겪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동화사	모집분야	자기 및 경력	연봉(만원)	미정일	연락처
yes금융정보	관리부/업무부/사업부/물류배치/전화교육상담 시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5	062-514-2451
텔레서비스(주)	하나로티엔아이 광주고객센터 해약 인버운드상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06	062-383-5407
뉴에이스(주)	하나로텔레콤 광주 고객센터 인버운드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07	02-2163-4125
남영건설(주)	SOCA사업팀/공통업무/관리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07	031-267-1861
모스트아이텍(주)	서비스 인지니어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08	062-351-3700
대림수산(주)	광주지역 영업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09	02-3472-9881
㈜후로넷	[주5일]SK텔레콤 광주 114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11	02-780-9595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2006년 분야별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1	010-6654-3480
시스템정보통신	정규직 웨일러이너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11	062-225-2112
대호기계	경리 및 회계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2	062-525-0937
㈜청일	관리팀, 생산팀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2	062-953-7952
㈜미래티앤씨	일반사무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12	062-372-785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